

말씀의 샘

고백의 변화와 새 역사의 시작 <사사기 6장 11~24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들 중에 한 가지 개념을 먼저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라는 말을 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는 표현이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축복은 빌 축祝에 복 복福자를 써서 복을 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누구에게 복을 내려 달라고, 복을 주시라고 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것은 엄연히 보면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며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복을 내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한자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내릴 降降, 복福자를 써서 강복자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축복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비는 축복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면 되는 것이죠. 축복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축복자와 강복자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합당한 곳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릴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릴 통해 세상이 복을 받기 원하시고, 인간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구분됩니다. 팀웍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하나님은 우리가 비는 복을 들으시고 그 복을 내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는 축복은 사실상 복을 받는 당사자가 듣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을 빌고 믿음의 말들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민수기 6: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에서도 강복자와 축복자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의 종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과 그걸 들으시고 강복하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놀랍고도 권세있는 팀웍을 위해 우릴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고백의 말과 하나님의 새 역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함께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바랍니다.

첫째, 먼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는데 모든 걸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비로소 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의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강복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몫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권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잃어버리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에게는 영적인 침체의 기간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그 기간 동안에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실감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의 조상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져가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큰 흉년이 든 기간 동안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있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야곱 일가를 태우려 보낸 수레를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수레를 불과 동시에 기운이 소생하였고, 그 수레를 타고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도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재 하셨습니다. 정황상 오랜만에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 뒤에 신기하게도 창세기 46장에서 브엘세바 강림을 경험하고 47장에 야곱의 행동은 애굽왕 바로를 만나서 축복합니다. 뒤이어 48장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또한 49장에 자신의 열 두 아들, 열 두 지파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의 권세가 회복됩니다. 깊이 하나님을 만날수록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기드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진정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축복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추수 때가 되면 모든 먹거리를 싹쓸이 하다시피 가져갔습니다. 비참하고 가난하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기드온이 밀이삭을 주워서 몰래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삿6:12) 하면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전혀 모르다가 후에 모든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으니 자기는 축을 것이라고 슬퍼합니다.

사사기 6: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라 하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의 축복의 시즌이 열립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살롱이라는 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선포를 한 후에,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을 삽니다. 고백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둘째, 그분을 만나고 고백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됩니다.

중요한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도 계속 고백이 바뀌지 않으면 예전의 삶 그대로를 살아가게 됩니다. 기드온은 '여호와 살롱'을 선포한 다음부터 그의 고백은 바뀌었습니다.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배의 키와 같이 인생의 키는 허라고 야고보사도는 야고보서 3장에 강력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불리한 여러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미디안족속을 쳐부수는 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전략은 이렇습니다.

사사기 7:18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19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백 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20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이 바뀌니, 인생이 바뀌고 전쟁에서 기드온과 군사들에게 칼과 무기를 주신 대신,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이 바뀐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그의 입술에 놀라운 권세를 물려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풀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으나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 장차 들짐승 곧 송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꼭 찬송과 믿음의 고백은 새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넉넉히 새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즌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치도록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16년 9월 25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10. 2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신명기 28장 1~4절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순종과 축복"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두란노 교회**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적임이 있는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